제13강 인도와 오리엔트의 철학

(1교시)

본격적인 철학을 발전시킨 것은 그리스 문명이며, 동북아 문명 역시 수준 높은 철학 사상들을 발전시켰다. 이에 비해 인도 지역과 오리엔트 지역(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 등)에서는 본격적인 철학이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철학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이 혼합된 고도의 사유체계들이 전개되었다.

우선 인도는 지리적으로 복잡하다. 인도라는 하나의 단일체, 인도인이라는 하나의 민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이기보다는 일종의 대륙이다. 그럼에도 (산스크리트어로 씌어진) 힌두교가 '인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해 준다.
인도 문명의 본격적인 건설자는 아리안족으로 알려져 있고, 페르시아와 같은 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같은 뿌리를 가지듯이, 『베다』와 『아베스타(Zend-Avesta)』에는 인드라, 바루나, 미트라 등 공통의 신들이 등장한다. 아리아인들은 소를 중시했으며(아직 숭배한 것은 아니다), 『마하바라타』 같은 대(大)서사시를 낳기도 했다.(「바가바드 기타」가 특히 유명하다)

카스트 제도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신분제도이다. 브라만(사제계층), 크샤트리야(군인, 정치가 등 귀족들), 바이샤(평민. 농공상인), 수드라(노예계층). 윤회(輪廻)와 업(業)을 이론적 기초로 한다.

(2교시)

인도의 신들은 그리스의 신들과 비슷하다. 전쟁과 승리의 신 인드라, 질서의 신 바루나, 하늘의 신 다유스, 태양의 신 미트라, 폭풍과 빛의 신 시바, 불의 신 아그니 등은 남신이며, 프리티비, 아디티 등은 여신들이다. 인더스 문명에서 베다 문명으로 가면서 남신들과 여신들의 지위가 바뀐다. 『베다』에는 일신교 사상도 등장하며 하나의 신이 여러 모습과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상이 등장한다. 또한 제사를 매우 중시했다.

인도인들은 흔히 네 가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한다. 욕정(kama)은 성적 즐거움을, 부(artha)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의무(dharma)는 윤리적인 질서를, 해탈(moksa)은 종교적 초탈을 추

www.artnstudy.com

구한다.

인도의 철학사상은 기본적으로 종교와 결부된 형이상학의 성격을 띠지만, 그에 못지않게 논리학과 인식론이 크게 발달했다.

산스크리트어로 씌어진 『베다』는 최초의 주요 문헌이다. 제사와 관련해 씌어졌지만 철학적 내용도 들어 있다. 『리그 베다』『싸마 베다』『야주르 베다』『아타르바 베다』의 4종이 있으며, 특히 『리그 베다』가 철학적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베다의 끝에 붙어 있는('베단타') 「우파니샤드」가 인도철학의 원형을 형성한다.
『주역』이 그렇듯이 『베다』 역시 성격이 다른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신들에 대한 시, 제사에 관한 내용들, 철학적인 내용의 우파니샤드, 그리고 브라흐마나에서 우파니샤드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밀림서(密林書)'로 구성된다.
『리그 베다』는 우주의 이법(理法)을 명확히 사유하고 있다. 'rta'는 동북아에서의 '도(道)'나 헬라스에서의 'physis'와 마찬가지로 "가다"를 뜻하는 어원에서 나왔다. 이 이법은 때로는 인격신들에 대한 문학적 묘사로서 제시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일자(一者 Tad Ekam)'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우주의 통일적 이법은 'Brahman'으로 파악되기도 했으며 브라만[婆羅門] 계층은 이 브라만을 깨달은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제사(祭祀) 만능주의를 전개했으며, 심한 경우 제사 없이는 신들조차 없는 정도가 되기도 했다.
또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인과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는 것이다. 카르마[業] 개념은 인도 사상의 근저에 깔려 있다. 또 5원소설이나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 등도 나타난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제사 지상주의가 거부되고 내면의 진리에 대한 탐구가 나타난다. 행위가 아니라 지식이 중시된다. 'Upanisad'는 "가까이 앉는다"를 뜻하며 진리의 비전(秘傳)을 함축한다. 대화 참여자들에는 때때로 노예들과 여성들까지 포함되었다.
인간의 참자아는 '아트만(atman)'이라 불렸다. 깨어있는 자아, 꿈을 꾸는 자아, 깊은 수면 상태의 자아, 희열 상태의 자아로 나아가면서 참자아를 발견해 나갔다. 브라만은 우주의 아트만이요, 아트만은 인간에게 내재하는 브라만이다. 이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경지이다. 이 때 업에서 해방된다. "tad tvam asi(네가 그것이다)", "aham brahma asmi(내가 브라만이다)." 이(理)와 성(性)의 관계와 유사하다. 우주와 내면 사이에서 현실사회가 탈각된다.

철기문화의 도래는 인도 문명을 크게 변화시켰다. 브라만의 권위가 흔들리고 스라마나[沙門]이 등장한다.('사학私學'과 비교)
승가(僧伽)라는 생활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고, 자유분방한 사유들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브라만교와는 달리 유물론적인 성향의 여러 사조들이 등장했다. 이는 세계를 물질로 보고, 인식을 감각으로 보며, 실천을 향락으로 보는 사상들이다. 기존 질서의 전복을 담고 있는 이런 사상들 중 챠르바카의 사상이 유명하다.(고르기아스와 비교) 그는 기존의 사상을 사제계급이 무지한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상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www.artnstudy.com

1. 만물은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되어 있다.
2. 인식이란 감각이며 그 자체 사원소의 작용이다.
3. 정신도 물질적인 것이다.
4. 영혼이란 의식이 있는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5. 향락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6. 죽음만이 해방이다.

당대의 대표적인 두 신흥 종교는 자이나교와 불교이다. 자이나교는 바르다마나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그는 고행 끝에 완전지(完全知)를 얻었다 한다. 그 후 '마하비라(위대한 영웅)' 또는 '지나(승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큰 교세를 떨쳤다. 자이나는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언, 소유를 금하는 오대서(五大誓)를 제시했다.
고타마 싯달타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 출가했다. 고행과 애욕의 양극을 피해야 한다는 중도(中道)를 깨닫고서 '붓다(깨달은 자)'가 되었다.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으며, 세계 3대 종교로 꼽히는 불교를 창시했다.

www.artnstudy.com